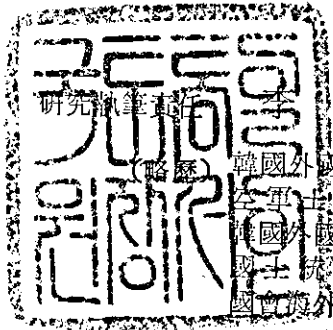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것임.

北韓關係—國際關係

對蘇接近 "모 델" 研究



徹

韓國外國語大露語科卒 (1957)
 空軍士官學校 教官 (1958)
 韓國外國語大, 서울工科大 講師 (1961~)
 國土統一院 分析官 (1969~74)
 國會海外資料局 蘇聯課長 (現在)

刊行責任 李 壽 一 (政策企劃室補佐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目 次

序 說	3
1. 對蘇接近의 戰略目標	7
2. 東·西接近의 類型	13
3. 東·西接近의 類型과 韓·蘇關係	17
4. 對蘇接近의 段階的 構圖	23
5. 對蘇接近을 위한 試案	31
가. 直接的 方法	33
나. 間接的 方法	37
結 論	45
資料 ; 最近 蘇聯의 韓國 및 「아시아」 政策關係論調	51



序

說

1. 4

11

政府는 6.23 平和統一外交政策 宣言에서 共產圈에 대한 우리의 門戶開放政策을 闡明한 以來 여러 方面에서 對소接近을 摸索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接近試圖는 基本的으로는 韓半島의 새로운 安保体制의 構성과 確立을 그 前提로 한 것임은 再論의 餘地가 없다. 그러면 이와같은 大命題를 어떻게 하여 對 共產圈 接近에 依해 實現해야 하느냐 하는 具體的인 外交論理의 確立이 무엇보다 先行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小聯의 對「아시아」政策의 基本이 될 「아시아集團安保」構想을 우리의 對소接近에서 어떻게 受容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具體的 論理的 對應力 作業은 무엇이냐 하는 點이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對소 外交接近에서 韓半島가 美·日·소·中共 等の 緊張緩和의 手段이 될 수 없으며 또한 韓半島의 中극적 目標인 統一을 沮害하는 結果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對소接近을 試圖함에 있어서 뚜렷한 目標가 設定되어야 겠으며, 그 中에서 北傀의 軍事統一政策을 抑制하고 韓半島 問題의 平和化를 定着시키는 것이 第1次的 目的이어야 하겠다. 이러한 目的性을 가지고 慎重을 期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對中·소間에 嚴格한 「政治的 中立」을 基本政策으로 삼아야겠으며, 그 中 北傀가 어느 쪽에 最終的인 依存性을 表示하고 있는가에 따라 相對的으로 우리의 外交的 努力의 比重이 바뀌지리라 생각된다.

한편 日本과의 關係인 바, 最近 日本은 韓國의 對中·소接近에 있어서 仲介役割을 다하겠다고 公言하고 나섰으나 (여기에는 直接的으로 日本에게 어떤 外交的利益과 關聯性이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日本의 韓国外交代行 行為는 決코 容納해서는 안되며 어디까지나 우리는 自主的 立場에서의 地方政策을 推進시켜야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對中·소接近의 外交目標가 日本의 그것과는 本質적으로 相融되기 때문이다. 單純히 美國과 日本이 中共에 接近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式의 「무드」的 接近은 當然히 排擊되어야 겠고, 確固한 目標와 論理法을 지니고 現實속에 潛在하고 있는 모든 可能性을 다 찾아내 우리의 戰略目標에 「앵글」을 다뤄 能動的인 「포지티브」戰略을 驅使해야 할 줄로 안다.

本稿는 이러한 大前提를 想定해 놓고 첫째, 對소接近의 戰略目標를 設定한 다음, 둘째, 戰後 東·西接近의 類型을 整理하여 셋째, 소聯의 韓國에 對한 政策需要를 分析하여 이 類型에 韓·소關係를 맞추어 보고, 넷째, 우리의 對소接近의 段階的 構圖를 設定하고 다섯째, 이 構圖에 依拠하여 初期段階의 對소接近의 諸般 試案을 辟略해 보았다. 끝으로 資料로서 最近 소聯新聞의 韓半島問題 乃至 「아시아」政策關係 論調를 첨부하여 소聯의 對韓態度를 考察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미리 強調하고 싶은 것은 소聯의 「아시아」政策의 基本인 「아시아」集團安保」構想이 아직껏 그의 具體성이 不透明한데다가 그에 대한 「아시아」諸國의 反應 역시 冷淡하다는 現實을 直視해 볼 때, 우리의 對소接近方法과 手段을 選擇함에 있어서 이 「構想」에 지나치게 論理性을 賦與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

오늘날 우리가 處해 있는 内外與件을 깊이 洞察해 본다면, 우리에게 必要한 것은 名分的 「政策」이 아니라 實踐的 「戰略」이라는 점이 다시금 強調되어야 할 것 같다.

1 . 對蘇接近의 戰略目標



國際政治에서 이른바 『眞正한 同盟도 眞正한 敵對國도 存在할 수 없다』고 한 말과, 『自國을 除外한 모든 國家가 假想의 敵國이다』라는 말은 相互 矛盾되는 것 같지만 事實은 똑같은 意味를 暗示해 주고 있다. 脫「이제올로기」가 云謂되고 國際的 多極化 情勢에 效果的으로 適應해야 한다는 政策的 命題를 앞에 두고 볼 때, 또한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와 平和의 定着은 周辺 強大國들의 直接 乃至는 間接的 合意없이는 不可能하다고 생각할 때, 韓國과 소聯과의 關係改善은 무엇보다 至急한 課題라 아니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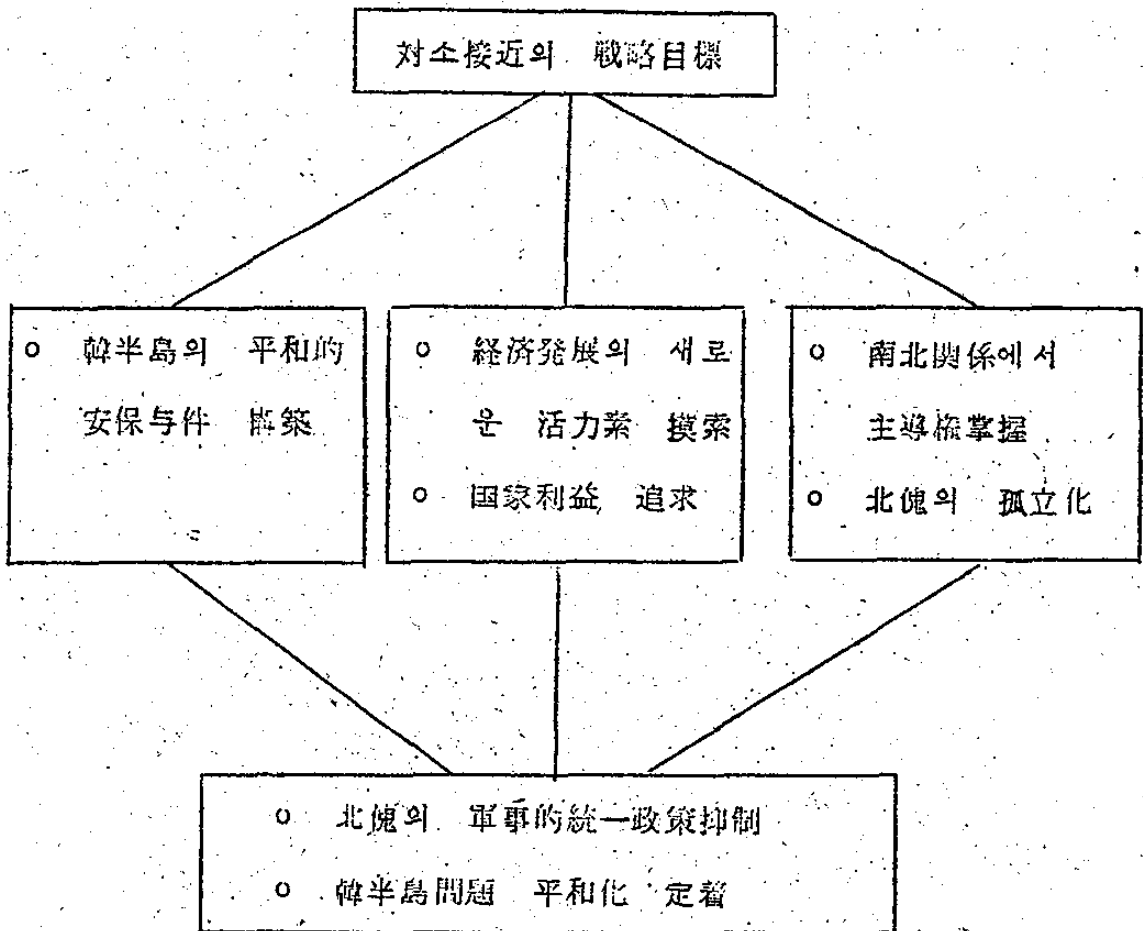
그러나 史上 그 類例를 찾아 볼 수 없이 閉鎖的이고 教條的이고 狂信的인 北傀의 現實的인 存在를 意識하지 않을 수 없으며 소聯과 同一體系의 地政學的 可能性과 「이제올로기」의 同質性을 가진 北傀의 政治的 存在를 韓國으로서는 無視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西獨 「브란트」의 東方政策은 東獨의 存在를 超越하여 소聯과의 關係를 改善하였다는 點 等を 考慮해 볼 때 (勿論 西獨과 韓國의 背景的 立場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現實속에서 存在하는 모든 可能性을 最大限으로 活用하여 國家利益의 幅을 넓혀가면서 自體의 安保를 維持 強化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對소接近을 實現해야 할 當爲性과 必要性, 다시 말해서 우리가 企圖하는 바 戰略的 目標은 무엇인가

첫째, 國際政治의 妙한 力關係를 利用하여 韓半島의 平和的 安保 與件을 構築하는 일이다. 우리는 韓國의 安保與件이 變化되었음을 痛感하고 있다. 過去는 美國과 소聯의 對決的 狀況속에서 追求되었던 韓國의 安保與件이 現在는 日本과 中共의 參與를 前提로 한

세계, 對소接近을 試圖함으로써 우리는 南北關係에서 主導權을 잡고 한편 北方3角關係를 瓦解시켜 北傀를 孤立시키자는 것이다. 必야호로 南北關係는 實質的 體制競爭關係에 突入하였고, 北傀는 우리의 6.23 宣言에 依한 對共產國 門戶開放政策 및 接近政策을 積極的으로 沮止하던서 對日·對美接近을 試圖하고 있다.

그러던서 北傀는 「南朝鮮革命論」을 버리지 않아 南北間에는 緊張強化要因이 尙存하고 있다. 이러한 北傀側의 非合理的이고 時代錯誤的인 思考方式을 払拭하기 위한 方便으로서도 對소接近의 必要性이 提起됨은 再論의 餘地가 없다.

그러나 問題는 「어떻게」라는 것이 남을 쏘이다. 먼저 北傀와 의 緊張의 障壁을 허물어뜨린 後 소聯에 接近하는 方法이 가장 理想的이라 하겠으나, 이는 現實的으로 到底히 不可能하기 때문에 소聯과의 接近을 먼저 試圖한 다음 北傀를 迂廻的으로 牽制하는 方法이 있을 것이다. 勿論 이 後者의 경우를 挾할 時 北傀側의 妨害工作이 뒤따를 것이나, 이는 獨逸式 接近方法으로서 民族間의 對立感情을 뒤로 미루고 周邊強大國들과 關係를 改竊시켜 統一의 環境을 밖으로부터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現實的인 方法이라 判斷된다.



2 . 東 . 西 接 近 の 類 型

1812

戰後 東·西間의 基本的인 接近 類型 1) 을 다음 세가지로 大別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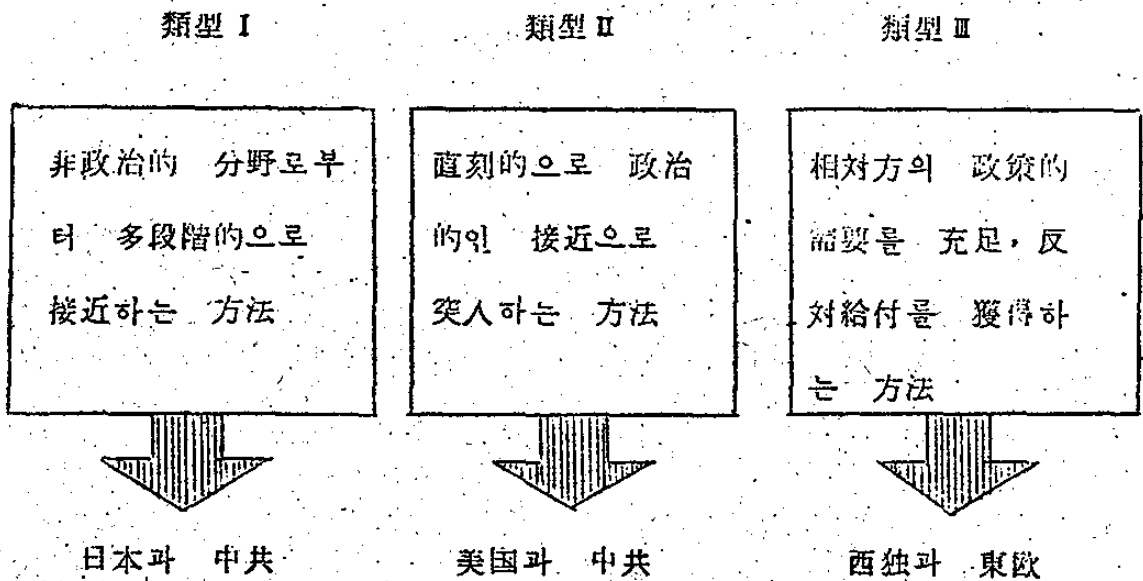
첫째, 「政經分離方式」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른바 多段階 接觸方式이다. 이는 「블록」체제의 強力한 監視를 避하기 위한 精妙한 對外政策의 所産이 였으나, 理念보다 現實的 利害關係를 優先해야 하는 現代의 國際政治에 있어서는 不可避한 方式이다. 이의 代表的인 事例가 中共과 日本의 경우이다. 이들은 文化的 側面의 接觸에서 漸次 經濟的 交流의 幅을 넓혀 外交的인 關係改善까지 이르렀다. 特히 兩國은 經濟的인 共同需要에서 始作하여 政治的인 關係로 移行한 좋은 標本이 되었다.

둘째, 相互 政治的 需要에서 出發하여 一挙에 正常的 外交關係로 突入하는 類型이 있다. 이의 代表的인 標本이 美國과 中共의 경우다. 美國은 1970年에 접어들면서 「평풍」外交에서 一躍 巨頭 接觸을 통한 外交關係設定까지 飛躍했다. 勿論 오랜 期間동안의 「바르샤바」大使級會談으로 兩國間의 理解가 깊어진 것이 바탕이 되겠으나, 이 경우 美國과 中共은 「아시아」情勢에서 共通的인 政治的 利害關係에 눈을 돌린에서 이루어진 結果이었다고 보겠다.

셋째, 相對方과의 共通的 需要에서가 아니라 相對方의 一方的 需要를 充足해 줌으로써 이루어지는 關係 正常化 類型이다. 이 一方的 讓步를 통해 얻어지는 反對給付는 國家的 地位 向上과 周辺 勢力에 대한 自主性 確立이다. 「브란트」가 東方政策을 効果的으로 遂行하기 위해 먼저 NATO의 現狀維持를 美國에 強力히 要求하고 西獨의 再軍備에 神經過敏에 빠져 있는 소聯에 대해 武力不

行使宣言을 하면서 不可侵條約을 締結한 것은 外形上 소聯의 一方的 要求를 無條件 受諾한 形態가 된다. 그러나 實質的으로는, 소聯, 東歐에 대한 西獨의 武力不行使宣言 交換과 國交正常化 交渉은 東獨으로 하여금 孤立케 하여 마침내는 東獨으로 하여금 西獨의 東方政策을 肯定的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하였음은 西獨의 國家的 地位向上에 「프러스」 要因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세가지 類型을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I, II, III. 에 부가해서 朝鮮으로 하여금 감시없는 對한해협 통
 과를 허용함으로써, 朝鮮근해 오츠크해와 베링해에서 한국의 造船활
 동을 저해받지않는 方向으로 유도

3. 東・西接近의 類型과 韓・蘇關係

以上の 東・西間の 基本的인 接近 類型과 關聯하여 韓・소關係를 定立해 보기에 앞서 小聯의 韓國에 대한 政策的 需要 与否를 먼저 檢討해 보기도 하겠다. 韓國은 小聯의 「아시아」 安保面에서 볼 때, 그들의 政策的 需要部位에서 熱過할 수 없는 部位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그것은 北方 3角關係에 있어서 北傀의 向方이 小聯보다 中共에 偏重하게 될 경우 그 需要는 더욱 간절하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韓國의 美・日에 대한 既存 紐帶關係가 事實上 無視할 수 없는 接近必要性的 한 要因이 될 수도 있다.

美國과 中共이 小聯과 日本의 팽창을 牽制하려 한다고 보는 것이 小聯側 立場이라고 한다면, 小聯은 優先 日本과 接近하는 것이 順序이고, 日本과 깊은 紐帶關係가 있는 韓國과 可能한 限의 關係改善은 必要한 事項이 된다.

한편 小聯과 中共關係에서 본다면, 小聯은 韓國에 接近하는 것이 緊急한 政策需要가 될지 모르나, 北傀의 存在를 意識한 나머지 韓國에 對한 性急한 反應을 極히 삼가하고 있는 것이 分明하다. 그러나 여기서도 北傀와 中共關係의 密着如何에 따라 小聯의 對韓 需要의 強度가 決定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韓國에 대한 小聯의 安保上 政策需要를 評價하고, 만일 韓國쪽에서 小聯에 對하여 先制的 提議의 必要性이 發生될 경우 韓國은,

첫째, 類型을 適用한다면 相互 文化的, 社会的 問題로서 純粹 非政治的 課題나 人道的課題를 들고 나갈 수 있겠다. 非政治的分野 交流의 提起 및 「사할린」 僑胞問題, 漁事關係 및 海上事故相互救濟 問題의 協商을 提議한 後 漸次 그 幅을 넓혀 小聯 旅客 輸送

및 商業目的을 가진 船舶의 領海 無害通過 및 寄港許容 等を 통
해 經濟的인 面에서 漸次 政治的인 것으로 多段階接近方法을 試圖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類型을 適用한다면, 韓國에 政治的 必要性이 提起되어 왔을
때, 即 美軍의 撤収, 北傀와 中共의 密着, 北傀의 對日接近의 深化
等 事態가 展開되었을 때 韓國은 이를 適切히 活用하여 소聯과
政治的 關係改善을 위한 接觸을 試圖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
은 우리의 安保條件을 考慮해 볼 때 바람직한 方法이라 할 수
없다.

셋째, 類型을 導入한다면 韓國을 南北赤十字會談이나 調節委員會會
談 等 南北對話를 適切히 維持하면서, 한편으로는 中共, 소聯 等에
게는 武力不使用宣言을 하면서 그들의 몇가지 外交原則을 받아들여
韓國의 立場을 스스로 解決할 수 있는 能力을 誇示할 必要가 있
을 것이다. 이 경우 韓國은 理念的으로 융통성을 誇示하여 새로
운 受容態勢를 確立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重要한
것은 相對方의 政策需要를 一方的으로 받아들여 그것과 對比되는
反對給付를 가려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對소接近의 絶對的 要件으로 拾頭되는 것은 強力
한 國力의 背景으로 이루어진 自體力量의 確保이다. 그것은 소聯
의 外交政策의 本質과 行動이 언제나 2重性을²⁾ 띠고 있는
데다가 그들은 相互力量關係에 대해 매우 敏感한 理論的 價値를
賦與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要因은, 西歐는 平和共存이
定着된 狀態에서 現狀固着이 이루어졌으나, 「아시아」에서는 平和秩

序는, 커녕 平和共存關係가 定着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流動的인 狀況에서 對소接近을 試圖해야 한다는 事實이다. 따라서 美·日을 비롯한 友邦諸國의 強力한 抑制力(美軍駐屯) 乃至는 保障策이 先行되어야 한다.

이러한 必須要件이 確立된 條件下에서(勿論 對소接近의 目的이나 接近過程에서 이러한 要件들이 充足될 수도 있으나) 韓國의 北方 政策은 平和共存이라는 大前提에서 出發해야 할 것이며, 同時에 對象國으로 하여금 우리의 外交가 平和定着에 絶對적으로 寄與할 것이라는 事實을 믿도록 하는 現實外交임을 確信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은 平和外交를 達成하는 基本原則이 될 것이다.

또 하나의 原則은 우리의 反共主義가 相對抹殺主義의 道具로서의 反共主義가 아니라는 點과, 이는 民主國家 繁榮과 平和的 發展政策 乃至는 우리의 經濟建設을 破壞하고 自主性を 害치는 勢力에 대한 防衛手段이라는 점을 分明히 남득시켜야 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國家의 政治性向성과 座標는 추호의 讓步가 있어서는 안되며, 또한 政治軍事的 座標가 어디까지나 西方에 所屬해야 하는 것이 韓國의 自由民主主義的 本質을 保護하는 方便이 되기도 한다.

[註]

註 1) 國土統一院, 소聯의 對韓關心度 및 對소接近方案, 1973.11.

註 2) Robert G. Wesson, The problem of Soviet foreign policy, 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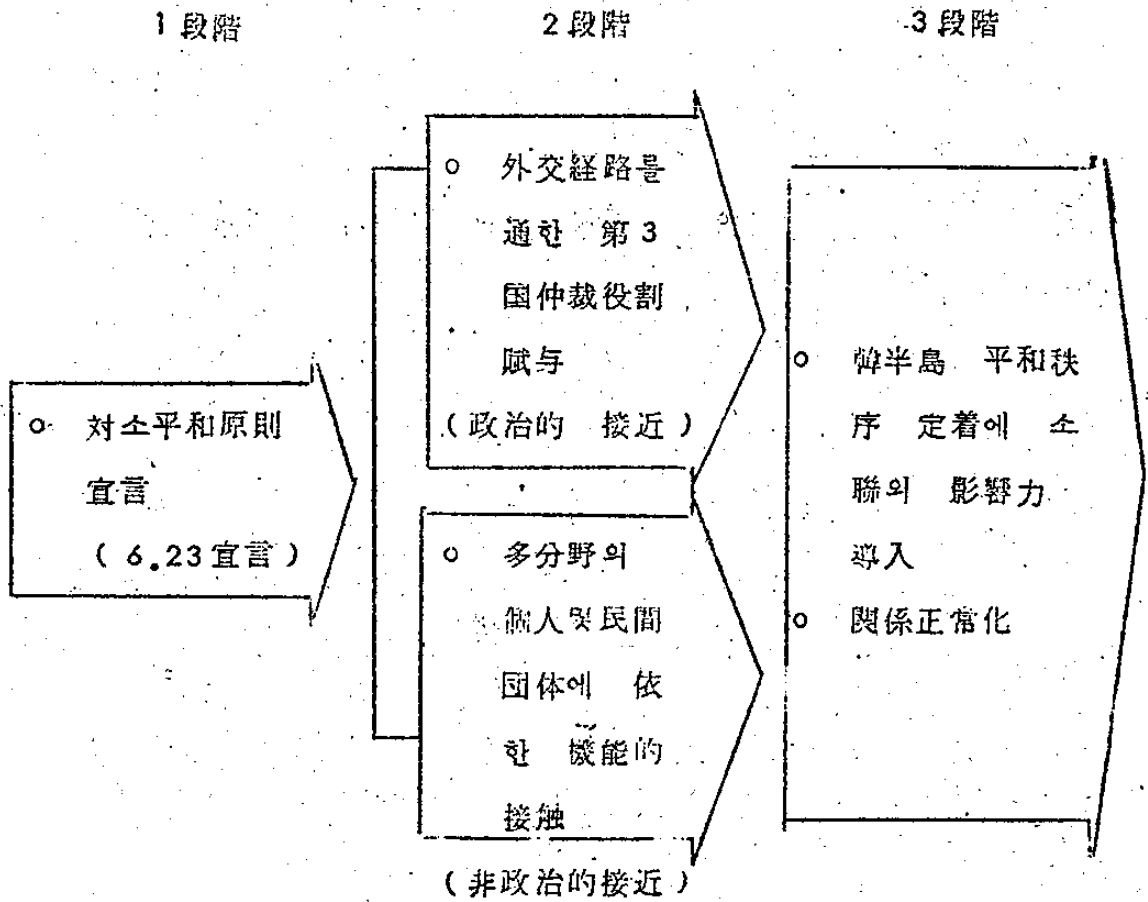
4 . 對蘇接近의 段階的 構圖

THE UNIVERSITY OF CHICAGO

上記한 東·西接近의 類型에 比준 韓·소關係의 適用與否를 考慮
해 볼 때 現時點에서 韓國은 「類型 I」의 多段階接近方法이 現實
的으로 가장 適合한 代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를 中心으로 우리
의 對소接近의 效果的인 段階를 筆者 나름의 생각을 定立해 보기
로 하겠다.

소聯으로서는 北傀를 제쳐 놓고 韓國과 接近해야만 하겠다는 切
實한 戰略的 價値를 現時點에서 認識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韓國은 I 段階는 對소平和의 原則만을 宣言하는 原初的
段階를 設定해야 한다. 勿論 이것은 6.23 宣言에 依해서 闡明되
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2 段階는 直接的이고도 能動的인 對
소接近方法이 具體적으로 展開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는
크게 나누어 外交經路를 통한 第3國의 仲裁役割 賦與方法, 및 多
方面에 걸친 民間團體 및 個人에 依한 直接接觸方法으로 区分할
수 있다.

前者의 경우 政治的次元의 接近策이라면 後者의 경우는 非政治的
水準의 機能的 接近方法 (Functional Approach) ¹⁾ 이라 하겠고
3 段階는 이러한 文化·經濟的接觸에서 實利追求의 目的이 達成되면
韓半島 平和秩序 定着에 소聯의 影響力을 導入해 보는 實驗的 段
階가 뒤를 잇게 되고, 그 다음 關係正常化한 政治的 段階로 나가
는 多段階 接近方法 乃至는 全天候的 總力外交가 並行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圖表化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前述한 3大戰略目標을 追求하기에 앞서 現段階에서 우리
 가 推進해야 할 豫備作業으로서는 무엇보다 相互間의 理解와 信賴
 의 幅을 넓히거나 소聯의 歪曲된 韓國觀²⁾을 漸次的으로 払拭해
 야 하는 整地作業이 先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먼저 接觸을
 容易하게 할 純粹 非政治的 分野의 個人對 個人, 民間機關對 民間
 機關, 그리고 漸進的으로 國家對 國家間의 接觸으로 그 幅을 넓혀
 야 할 것이다.

段階	1 段階	2 段階	3 段階
分野	純粹 非政治的分野 의 各種 接觸	非政治的 乃至 專門 的分野의 各種接觸, 擴大	相互關心事를 위한 各種接觸開始, 戰略 目標도 誘導
方法	情報交換, 資料交換 (直接 乃至 間接)	專門誌交換 및 專門 家交流 (直接)	政府 P.R 刊行物供給 (直接)
媒介體	個人對 個人	民間機關對 民間機關	國家對 國家

· 以上 3 段階를 段階的으로 推進하는 過程에서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附隨效果(戰術的目標)를 開發할 수 있을 것이다.

1 段階	소聯의 歪曲된 韓國觀에 대한 修正의 心理的 動機를 賦与
2 段階	韓國社會에 대한 正確한 觀察을 誘導
3 段階	南北韓社會의 客觀的 比較能力을 高揚하여 協力關係로 誘導

[註]

註1 : 機能主義는 國家相互間에 機能的分野의 協力을 통해 世界 또는 어느 地域을 하나의 새로운 社會로 結合시켜 共同社會로 發展시킬 수 있다는 것을 基本論理로 하고 있다.

D. Mitrany 教授는 (A working peace System, 1966) 國家間에 協力할 수 있는 課業을 政治的인 것과 非政治的인 것, 即 政治的인 것과 技術的 機能的인 것으로 区分한다. 그 理由는 後者가 前者보다 國家間의 協력이 더 容易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補社事業을 함께 協力해서 나갈 때 그 過程에서 竝得한 知識은 國際社會의 共同利益을 위해 自然히 한 事業分野에서 다른 分野로 옮겨 移轉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註2 : 소聯의 對韓國關係 情報의 主要出處源은 거의 基本的으로 北傀資料에 依存하거나 北傀駐在 소聯特派員의 報告에 따르고 있음. 다음은 1971年版 소聯政府 發刊 『年報』 (ezhegodnik)에 실린 南北韓部分의 內容을 要約한 圖表이다.

	北 傀	韓 国
主要内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国家組織 ○ 政党, 職業同盟, 其他 社会团体 ○ 經 济 ○ 主 要 事件 ○ 对 外 活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治 (美帝支援下 軍事 独裁) ○ 經濟 (外国資本依存) ○ 其他 否定的인 社会要因
備 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紙面의 3/4 할애 ○ 主文으로 構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紙面의 1/4 할애 ○ 副文으로 構成



5 . 對蘇接近을 위한 試案

爲： 大 陸 公 司 經 理 部 印

가. 間接的 方法

試 案 1

對소接近의 幕後仲裁役으로서 印度를 選択할 수 있겠다. 美國은 中共과 印度關係가 敵對關係로 남아 있는 狀況속에서 中共과의 和解를 摸索함으로서 印度에 대한 影響力을 잃었다. 그 結果 이 地域에 대한 소聯의 影響力은 急激히 增加하고 確固한 발언을 吐었다.

反面 소聯은 「아시아」에서의 勢力均衡을 위해 日本의 힘을 拔리려고 했다. 美國의 「플터모아·선데이」紙도 韓國政府는 對소接近을 試圖하기 위하여 印度政府에 仲裁를 要請했다는 報道가 있었다.

試 案 2

國際機構의 總本山을 가지고 있는 「스위스」같은 나라에 仲裁役을 要請하는 方法이 있다고 하겠다. 72年 8月 2日 駐韓「스위스」代理大使는 金鍾泌 國務總理를 禮訪할 時 『우리는 北韓을 敵性國家로 認定할 意思가 없다. 「스위스」政府는 南北 赤十字會談 等 南北接觸을 支援할 用意가 있다』고 한바 있다. 우리는 南北接觸에 있어서 共通의 利益分母를 가진 「스위스」를 南北關係 뿐만 아니라 對共産圈 接近의 仲裁役으로도 適格者로 보아야

試 案 3

国土 및 民族分斷이라는 共同運命을 가졌기 때문에 西獨과 韓國은 國交的 紐帶關係가 比較的 두터웠고, 또한 地域的으로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相互 國家利益에 있어서 相衝되지 않으므로 우리의 對蘇 接觸의 「채널」을 極秘裡에 要請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西獨의 東方政策에 便乘하여 對蘇關係의 改善을 試圖해 보자는 것이다.

試 案 4

非同盟中立主義諸國 보다 積極的인 國家關係를 展開하면서 ASEAN 같은 機構의 自進 加入의 用意를 間接的으로 表明하여 蘇聯으로 하여금 韓國의 政治的 中立性을 外面的으로 認識시키는 方法을 選擇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경우 提起되는 問題點은 ASPAC의 處理問題이며 이는 韓半島의 平和秩序가 強大國에 移해서 解決될 展望이 선다면 果敢하게 方向轉換을 試圖할 수 있겠다.

試 案 5

韓國은 日本과의 紐帶關係를 媒介體로 하여, 特別 日·소間的 懸案問題인 「시베리아」 問題에 參與할 수 있는 契機를 外交的 努力에 의하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日·소間은 歷史적으로 角逐戰을 展開하여 왔고, 2次大戰 終戰 무렵 소聯은 日·소不可侵條約을 一方的으로 廢棄하고 對日宣戰布告를 했다. 그 後 소聯은 日本軍 捕虜에 대한 非人間的 取扱과 더불어 對日強硬一辺倒 政策으로, 一貫하여 왔다. 때문에 日本人의 對소感情은 좋지 않다. 그러나 日本의 一次的 國家利益은 如前히 經濟的인 것에 集約되었다. 다시 말해서 日本의 外交政策 決定에 있어서 超黨的 意見一致가 存在치 않는다고 假定할 때, 反而 소聯은 對日接近을 끈질기게 展開하려 할 때, 兩國間에서는 政治經濟的인 共同利益事項이 있게 마련이다. 우리는, 이러한 雙方間의 關心事를 銳意 檢討하여 日本의 支援에 依한 對소接近을 試圖해 볼만하다.

試 案 6

重要海外 日刊紙를 選定하여, 6.23 宣言에 立脚한 政府의 門戶開放政策에 관한 關係記事를 繼續적으로 掲載해야 할 것이다. 이 記事를 掲載함에 있어서 北傀側이 行한 바 있는 「金日成著作集」等 純粹 政治的 宣傳方法은 止揚하여 韓半島事態의 特殊狀況에 따른 韓半島 平和秩序 定着의 必要性을 強調하는 方向에서 論評을

실려야 할 것이다. 特히 留意해야 할 일은 各新聞의 傳統的 性格에 符合되게 神經을 써야 할 것이다. 아울러 商業的 中立主義 性向의 商業廣告도 권장할만 하다고 하겠다.

試 案 7

「유엔」을 根據地로 하는 對소接近試圖를 보다 內密裡에 本格化 해야 할 것이다. 東·西各國 代表者會場의 「싸롱」外交를 통해 소聯과 妥協하는 실마리를 끈덕지게 풀어야 할 것이다. 6.23 宣言에서 開放政策을 闡明한 以上 伸縮性 있는 外交活動을 展開하는데 있어서 「유엔」이란 舞臺는 이미 接觸 可能한 對話의 廣場으로서 適格인 것이다. 다만 外交官들의 姿勢에 있어서 보다 內容的이며 眞摯하고 獻身的인 技량이 絶對 必要하다고 하겠다. 特히 소聯專 門家 乃至는 소聯語 解得者가 이의 橋梁 役割을 다해야 할 것이 다.

試 案 8

對소平和外交 展開를 위하여 韓國은 商業的 中立主義 (Commercial Neutralism)를 提唱하여, 特히 領海內의 自由港 設置나 內陸에 非敵性 共產國家의 旅客機의 寄着을 許容하는 等의 對外的 表示를 강구해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東歐와의 貿易關係의 一般

的 原則을 提示한 바 있으나, 여기서는 좀더 具體的인 談步事項을 提示하여 相對方의 反應을 忖 보아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는 商業的 志向性이 있는 經濟的 事項이라면 어느 때, 어느 國家를 莫論하여 門戶를 開放하겠다는 原則이 이미 서 있기 때문이다.

나. 直接的 方法

試 案 1

對소放送의 強化 및 弘報物의 配布에 따른 소聯의 歪曲된 韓國 觀을 早速히 正拭해야 할 것이다. 이를 實施함에 있어서 平和 互惠, 平等의 原則下에 敵對的 內容을 一切 止揚하고 平和志向의 性格과 傳統的 文化關係의 對소放送 「푸로」를 新設하거나, 露語로 된 宣傳物을 發刊하여 直接 소聯에 우송하거나 中立國을 통하여 間接적으로 소聯內로 配布해야 할 것이다. 但, 政府 弘報物에 있어서는 非政治的인 學術, 技術分野나 經濟分野에 局限되는 것이 바람직하여 紙質과 製本 等に 格別한 配慮가 있어야 할 것이다.

試 案 2

純粹學術誌를 소聯內 關係學術機關에 直接 送付하여 于先 資料交換體制를 設定하는 일이라 하겠다.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個人對

個人, 學術機關對 學術機關이라는 接觸이라는 點이 強調되어야 할 것이며 그 基礎가 마련되면 漸治的으로 韓國學關係 學術會議에서 相互 意見交換할 수 있는 契機를 모색하는데 注力해야 할 것이다. 初期段階에 있어서는 第3國에서의 會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試 案 3

韓國의 浸禮教 宗教團體로 하여금 「모스크바」의 「全소福音主義 浸禮教 幹部會」에 雙方間의 宗教關係 書籍交換 및 福音에 關한 協議에 關해서 問題를 提起할 必要가 있다고 하겠다. 이 團體는 純粹 宗教團體로서 소聯當局으로부터 公式的으로 認可를 받고 있으며 刊行物로서는 隔月刊 『Bratski Vestnik』를 發行하여 全世界에 傳播하고 있다. 「레닌」이 『우리는 國家와 宗教를 分離했으나, 國民과 宗教는 分離할 수 없다』고 述懐하고 있는 만큼 宗教는 「러시아」人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다. 그리고 1941年 6月 21日 獨逸軍이 소聯 領內에 侵入했을 때, 「히틀러」는 『이 戰爭은 宗教回復을 求하는 聖戰이라』고 宣言했다. 이 「히틀러」의 策略에 當황하여 「스탈린」은 1941年 6月 23日 全放送網을 통하여 「러시아」 希臘正教의 大司教 「세르게이」로 하여금 『우리는 이 戰爭을 支持한다. 神이 「러시아」를 救할 것이다』라고 放送시켜 結局 宗教는 戰爭으로 因하여 그의 國

內 存続權을 獲得할 수 있었다. 심지어 1944년에는 神學校가 開設되어 젊은이에게 信仰心을 심어주는 데 힘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現實을 考慮하여 소聯內 各種宗教團體에게 그에 相應하는 韓國의 團體들이 個別的으로 接觸을 試圖한 다음 漸次的으로 그 幅을 넓혀 궁극적으로 宗教人 交流로 誘導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는 소聯當局이 바라는 方向은 아니라고 본다.

試 案 4

소聯의 韓國語文學關係 研究機關 및 研究者에게 個別的으로 資料 支援을 提起하면서 關係分野의 學術資料交換 및 研究協調를 確立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 때 可能한 限 相對方 母語로써 書信交換이 이루어지면 보다 바람직하다. 그러나 여기서 留意되어야 할 事項은 무엇보다도 相對方의 關係分野의 情報를 正確히 把握하고 그에 對應하는 伸縮性 있는 方案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소聯은 韓國學分野에서 이미 40編以上の 博士學位 論文과 候補論文을 發表한 바 있으며, 韓國語文學 研究機關으로서 「모스크바」 大學 東洋言語研究所 「레닌그라드」 大學의 東洋學部, 「모스크바」 에 있는 科學「아카데미」 산하 東洋學研究所가 그 代表的인 專門 機關이다.

한편 소聯은 「3國史記」를 包括的인 概觀과 註解를 붙여서 露訳(1959年)한 것으로 비롯하여 「九雲夢」, 「雙釵奇逢」,

「春香伝」, 「中世韓国說話集」等 韓国古典을 翻譯 發刊한 일이 있으며, 韓国研究는 (韓國을 除外한 地域) 露語를 통하지 않고서는 不可能한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試 案 5

韓國은 國立博物館에 備置된 國寶級 文化遺産의 紹介冊子를 蘇聯 內 博物館에 보내어 純粹 考古學 및 美術關係 資料交換은 勿論 共同關心事에 關하여 對話의 幅을 넓혀 갈 수 있다고 보겠다. 이것은 個人對 個人에서 博物館對 博物館으로 段階적으로 接觸의 幅을 넓혀야 할 것이다.

試 案 6

韓國의 「러시아」文學翻譯物을 蘇聯의 該當文學研究所나 圖書館에 送付함으로써 그 分野의 相互關心事를 發展시킬 수 있다고 하겠다. 日本의 경우, 中村白葉라는 露文學翻譯家는 平生露文學作品 翻譯에 기여한 業績으로 蘇聯邦 最高會議에서 名譽勳章을 수여받은 바 있다. 이것은 韓國이 相對方의 文化에 대하여 關心度가 크다는 것을 誇示하게 될 뿐만 아니라 相對方으로 하여금 韓國을 再認識하게 되는 契機를 造成할 수 있다.

試 案 7

소聯의 韓國關係 人文·社會學分野의 研究資料의 一次的인 供給源이 北傀에 依存되어 있기 때문에 그 研究內容面에 있어서 極히 貧弱하다. 이러한 韓國關係 人文·社會學分野의 소聯의 취약성을 嚴密히 檢討하여 該當分野의 專門家 乃至는 研究所에 依한 資料交換 및 研究結果交流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겠다. 여기서 分野別 소聯의 研究概況과 方向을 略述하면 다음과 같다. 1)

分 野	研 究 概 況 및 方 向
地 理 學	○ 貧弱하다. 一般의 情報物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歷 史 學	○ 唯物史觀에 依拠하여 史實을 歪曲하고 있다. ○ 比較的 研究內容이 豐富하나 大部分 北傀資料에 依存하고 있다. ○ 大部分 日本의 韓國에 對한 帝國主義 侵略關係를 많이 다루고 있다.
經 濟 學	○ 北傀 經濟中心으로 다루고 있고 虛構性이 많다. ○ 統計便覽形式에서 脫皮되지 못하고 있다.
政 治 學	○ 斷片的·論文이 많다. ○ 北傀의 社會主義 基礎構築, 外國軍隊 撤收의 必要性, 金日成의 革命傳統思想 등을 重點的으로

分 野	研 究 概 況 및 方 向
法 律 学 國際關係 文化 및 教 育 語 文 学	<p>다루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5年 1961年の 北傀의 法律에 置重하고 있고, 韓國關係는 全無하다. ○ 韓國의 美·日依存性 및 韓國의 内部的 갈등 等 否定的 側面을 強調하고 있다. ○ 宣傳物의 限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北傀의 國民教育에 力點을 두고 있다. ○ 韓國의 傳統的 民俗文化에 대하여 関心이 많다. ○ 相當한 學門의 水準에 達하고 있으며, 이미 辭典, 文法書가 刊行되었다. ○ 韓國의 古代, 中世文學의 古典物 翻譯이 活潑하게 進行되고 있다.

試 案 8

소聯의 圖書館들은 資料蒐集 및 圖書購入에 있어서 漸次的으로 非「마르크스」主義的 見解의 資料를 蒐集目錄으로 收容하고 있다.²⁾ 따라서 이러한 소聯의 非共產圈 資料의 새로운 出處 및 蒐集源을 充足시키기 위하여 이에 対応되는 措置가 있어야 할 것이다. 特히 소聯內 韓國學 專門家들의 韓國에 關한 文獻의 包括的 体系的

著書目錄을 希求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充足시키기 위하여 韓國
關係 書誌目錄 등을 소聯內 關係圖書館에 보냄으로써 資料交換體制
를 確立할 수 있다고 본다. 特히 소聯內에서 韓國關係 主要文獻
을 備置하고 있는 圖書館으로서는 韓國民의 集結地로 有名한 「알
마아따」의 「뿌쉬긴」 國立圖書館과, 「블라치보스토크」의 東洋研究所
圖書館으로 알려지고 있다.

[註]

註 1 : George Ginsburgs, A Profile of Soviet Literature on
Korea, 1949 ~ 1970

註 2 : 美南加州大學教授 「로저·스위링겐」,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1958, 12



結 論



筆者는 序說에서 對소接近試圖에서 먼저 두렷한 外交的 目標와 論理가 定立되어야 한다고 問題를 提起하고, 그의 一次的 目標은 어디까지나 北傀의 軍事統一政策을 抑制하고 韓半島問題의 平和的 構造化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目標을 達成하기 위하여 對소接近을 試圖할 때 留意해야 할 問題點으로서 中·소 兩國間에 嚴格한 「政治的 中立」을 標榜하는 일과 自主的인 「포지티브」戰略을 堅持하여야 하는 일이라고 前提하였다. 이러한 趣旨에서 第1章 「對소 接近의 戰略目標」는 크게 나누어 세가지로 壓縮시켜 보았다.

첫째로 韓半島의 平和的 安保條件 構築, 둘째로 經濟發展의 새로운 活力素를 探索하여 國家實利를 追求하는 일, 셋째로 南北關係에서 主導權을 掌握하여 北傀를 外交的으로 孤立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戰略的 目標을 追求하기 위하여 對소接近의 事例를 찾아 그 類型을 간추려 보는 일이다. 따라서 第2章 「東·西 接近의 類型」을 簡單하게 整理해 보았다. 即 「類型Ⅰ」로서는 日本과 中共의 事例를 들어 非政治的 分野로부터 漸次的 國家關係로 突入하는 多段階的 接近方法과, 「類型Ⅱ」로서는 美國과 中共의 事例를 들어 雙方의 政策的 需要에 따른 直刻的인 政治的接近으로 突入하는 方法, 그리고 「類型Ⅲ」으로는 西歐와 東歐 共產諸國과의 事例를 들어 相對方의 政策的 需要를 일단 充足시킨 다음, 그에 대한 反對給付를 가려잡는 方法을 提示하였다.

第3章 東·西接近의 類型과 韓·소關係에서는 以上の 東·西間의

基本的인 接近類型과 關聯하여 韓·소關係를 假想的으로 定立해 보았으며, 또한 對소接近의 絶對的인 要件으로써 소聯의 外交活動이 恆時 二重性에 依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對処하는 方便은 바로 強力한 国力의 背景과 友邦諸國의 強力한 抑制力이 充足되어야 한다고 前提하고 第4章 「對소接近의 段階的 構圖」에서는 漸進的 構圖를 마련해 보았다.

即 1段階는 對소平和의 原則만을 宣言하는 原始的 段階일바 이는 우리의 6.23 宣言에 依해서 이미 表明되었으며, 2段階는 外交經路를 통한 第3國에 仲裁役割을 賦与하는 間接的 方法과 多方面에 걸친 民間團體 및 個人에 依한 直接的 接觸方法을 提示하고 特히 後者는 非政治分野의 機能的인 接近方法 (Functional Approach)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3段階는 이러한 文化, 經濟的 接觸에서 實利追求의 目的이 達成되면 韓半島 平和秩序 定着에 소聯의 影響力을 導入해 보는 實驗的 段階가 뒤를 잇게 되면, 궁극적으로 關係正常化를 끌고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多段階的 推進方法을 이룩하기 以前에 우선은 소聯의 歪曲된 韓國觀을 漸次的으로 払拭하는 整地作業이 先行되어야 한다고 強調했다.

第5章 「對소接近을 위한 試案」에 있어서는 上述한 基本方向과 前提條件을 念頭에 두고 實質的으로 對소接近을 試圖하는 具體的인 方案들을 첫째 間接的 方法, 둘째 直接的인 方法으로 나누어 各各 8個의 試案을 提示해 보았다. 間接的 方案으로는 主로 第3者에게 仲裁를 요청하는 方法으로 集約되었고, 直接的인 方案은 非政治的인

野의 接觸을 前提로 相對方의 情報를 면밀히 檢討한 後, 그에 따르는 方法提示로서 實現 可能性이 있는 것으로 判斷하였다.

結論적으로 말해서 筆者는 現時点에서 對소接近試圖는 하나의 論理에 앞서 公式 및 非公式 外交「채널」을 통하거나 民間「레벨」을 통하거나 可能的 모든 手段을 다하여 強力한 攻擊戰略으로 實踐에 臨해야 할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国内的 沮害要件들도 果敢히 除去되어야 할 줄로 생각한다. 일단 國家政策 需要上 對소接近의 當爲性이 認定되면 現實 속에 存在하는 모든 可能性을 最大限으로 活用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資料；最近 蘇聯의 韓國 및 「아시아」政策關係論調

1948年 10月 20日 星期日 北京 清华大学

1. 韓國의 「非常措置」와 關聯하여 韓國內 社會事情을 批判한 論調

(4月24日字 『프라우다』紙 論說者欄에 「暴政과 獨裁에 反對하여」라는 題目下의 「라주바세프」論評)

彈圧의 새로운 波濤가 南朝鮮을 덮쳤다. 最近 서울의 軍事裁判에서 現政權의 政策을 批判한 野黨의 統一民主黨 黨員 5名이 10年에서 15年の 禁錮刑을 宣告받았다. 그밖에 現在 서울에서는 反政府 活動罪로서 一團의 人士들이 체포되어 審問을 받고 있는 中이다.

서울의 爲政者들은 朴政權의 政治體制에 대하여 날로 增加되어 가는 住民의 不滿을 억누르기 위해서 不斷한 鎮壓策을 講究치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금 南朝鮮에서는 前例없는 軍과 警察에 依한 獨裁行爲가 恣行되어 있으며, 現制度를 批判한 모든 사람은 無慈悲한 迫害를 받고 있고 著名한 政治家, 社會 活動家, 作家 및 言論人들이 無數히 投獄되어 있다.

昨年에 새로운 憲法이 制定되어 朴正熙 獨裁를 合法化하였으며, 그 량찰아도 보잘 것 없었던 國民의 自由의 마지막 殘餘分마저 抹殺되고 말았다. 政治觀을 달리한 異端者를 다루는 裁判과 制裁는 또 다시 朴政權의 獨裁에 反對하는 勞動者, 知識人, 學者 및 大學生들의 鬪爭에 새로운 注意를 환기시켰다.

南朝鮮國民의 不平은 經濟的인 窮乏과 困難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不斷히 增大되어가는 外勢의 依存性에 起因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朝鮮의 統一問題 解決을 分明히 願치 않고 있는 政權과 더 以上 妥協하기를 願치 않고 있다.

周知의 事實이지만,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多年間에 걸친 努力으로 2年前에 祖國統一의 方案을 모색하기 위한 南北間의 協商이 始作되었다. 그러나 서울側의 지연政策으로 말미암아 이 協商은 實質的으로 결렬상태에 놓였다.

現在 여러 階層의 數 많은 住民들이 南朝鮮의 民主化와 그 어떤 外部의 干涉없이 平和的이고도 自主的인 方法으로 南北을 統一하기 위하여 不屈의 鬪爭을 繼續하고 있다. 大學生들의 反政府 行動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서울의 大學에서는 集會와 「데모」가 또다시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테러」行爲의 禁止와 全國적으로 民主改革을 斷行할 것을 단호히 要求하고 있다.

그러나 數 많은 學生들을 拘禁함으로써 간신히 이들의 行動과 發言을 막을 수가 있었다.

이같은 젊은 學徒들의 發言은 南朝鮮에 있어서 廣範한 社會的의 支持를 얻었다. 最近에 와서 一團의 政治 및 宗教活動家들은 改憲할 것과 南朝鮮 國民에게 民主的인 基本權을 保障해 줄 것을 朴正熙 大統領에게 歎願했다. 이 같은 歎願이 61名의 南朝鮮 文學者들의 聲明書 속에서도 包含되어 있었다.

이러한 正當한 要求는 拒絕되었으며, 여기에 署名한 者들은 大部分 逮捕되었다.

그러나 서울政權에 依해서 주어진 獨裁와 制定은 民主的인 社會

改革 및 南北統一을 위하여 朴政權에 對抗하여 鬭爭할 南朝鮮人民
大衆의 意志를 決코 꺾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鬭爭隊列에 새롭고 새로운 社會勢力이 繼續 加担하게 될
것이며 그들을 同情하는 立場에서 온 國民은 後援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 中共海運의 印度洋 進出에 대한 非難論調

(5月9日字 『프라우다』紙 「따스」通信 編輯者
「줄리끄」의 論評)

中國은 이미 1年餘에 걸쳐 印度洋을 通過하는 蘇聯船舶들은 일일이 「체크」하면서 『蘇聯의 「아시아」 및 「아프리카」諸國의 人民들을 海上으로부터 威脅하고 있다』고 즐기찬 宣傳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때마다 그들은 『蘇聯은 巨大한 海洋強國이며, 印度洋은 蘇聯의 東·西 港口를 1年내내 連結시켜주는 自然路』라는 事實에 대해서는 不問에 부치고 있다.

印度洋 沿岸國家들은 『公海上에서의 船舶의 自由로운 航行』이라는 國際法上 原則에 따라 蘇聯船舶의 이러한 通行에 대해서는 反對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들 國家들은 印度洋에 外國軍事基地 設置와 새로운 海軍部隊의 投入을 『이 地域의 緊張造成』이라는 理由로 不斷히 反對하고 있다.

그런데 北京當局이 바로 이러한 方向으로 내닫고 있는 것이다. 印度의 『페트리오트』紙가 指摘한 바와 같이 『中國은 最近 몇年 동안 印度洋과 西大平洋 地域을 마치 그들의 影響圈으로 생각하고 있다』. 마침내는 『「아조프」海에 中國의 海軍艦隊를 派遣하는 計劃을 세우는』事態에 까지 번지게 된 것이다.

AFP特派員은 北京發記事로서 『中國은 核潛水艦 製造에 興味를

보이고 있다』고 報道했으며, 「런던」의 『데일리.텔레그라프』紙는 將次 豫想되는 「타일랜드」, 南朝鮮, 台灣으로부터의 美軍撤収에 따른 『힘의 眞空狀態』를 메꾸기 위해서 中國은 海軍力 增強을 서두르고 있다고 報道했다.

이 모든 事實들은, 北京當局이 西方帝國主義 「블록」의 손아귀에 늘어나면서 意識적으로 이 地域의 분위기를 高潮하고 있다는 것을 代辯해 주고 있다.

이러한 北京의 軍事活動은 美國의 軍首腦部の 完全한 諒解를 얻고 있다는 점과, 『케트리오트』紙가 特別히 指摘한 바와 같이 美第7艦隊는 印度 西海岸上의 中國艦隊의 出現에 대하여 何等의 反應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特記할만한 일이다.

많은 新聞들은 美第7艦隊는 「파라셀」群島에서의 最近 中國海軍의 軍事活動에 대해서 『平穩한 態度』도 對処했다고 大書特筆하고 있다.

結局 北京當局은 한편으로는 反「소베트」적인 酷評을 일삼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印度洋과 太平洋에서의 자기네들의 軍事力增強에 血眼이 되어 있다. 이같은 政略은 「아시아.아프리카」諸國의 人民들의 追求하고 있는 目標과 이 地域에서의 恆久的 平和를 위하여 高潮되어가고 있는 鬭爭에 逆行되고 있는 것이다.

3. 第7次 ASEAN 外相會議와 關聯하여 「아세아」 諸國의 相互協力問題에 대한 論評

(5月17日字 「프라우다」紙 解說者欄의
「빅토르·마엠프스키」 論評)

最近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폴」, 「타이랜드」, 「필리핀」 등으로 構成된 東南「아시아」國家聯合 (ASEAN) 의 第7次 外相會議가 開催되었다.

會議 參加者들의 關心의 焦點은 共同「코뮤니케」에서 밝힌 바와 같이 ASEAN 加盟國은 勿論 日本, 「오스트레일리아」 및 『共同市場』諸國과의 經濟協力問題였다. 이 會議에서 ASEAN 常設秘書局을 「자카르타」에 設置할 것과 ASEAN 規約을 만들기로 決定을 보았다.

對外政策問題에 關해서는 지난번 會議에서 採択된, 即 東南「아시아」地域에서의 平和와 自由, 그리고 中立을 保障하는 宣言을 對外 弘報 聲明書에서 再確認하였다. 또한, 越南에서의 戰爭終熄과 平和 回復에 대한 協定을 忠實히 履行하도록 呼訴했으며, 「이스라엘」의 領土膨脹政策을 非難함과 同時에 「아랍」領土의 占領된 모든 地域을 解放시킬 것과 「팔레스타인」民族의 法的 既得權이 遵守되도록 要求했다.

또한 「라오스」에 單一民族의 臨時政府가 樹立된 것을 歡迎했으며, 「캄보디아」에서 어떠한 形態의 外勢의 干涉도 없이 自身の 힘으로 政治的 問題가 平和적으로 解決되도록 呼訴하였다.

「자카르타」의 ASEAN會議結果를 決算하면, 會議 參與國間의 뚜렷한 意見 差異에도 不拘하고 會員들이 隣接國家間의 地域的 協力 增進의 길을 모색하자는 努力이 立證되었다는 事實이다.

이러한 努力은 여러가지 理由에서 起因되는 바, 그中에는 이들 經濟에 漸漸 加增되어가는 独占資本의 浸透에 대한 憂慮가 있다.

東南「아시아」에 投入된 日本의 資本이 約 20 億「달러」에 달하고 있다는 事實이 그 좋은 例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地域에는 約 300 個의 大企業이 日本의 統制下에 놓여 있는 것이다.

先進 資本主義 國家에 대한 財政 및 經濟的 依存關係가 增大되고 있다는 事實은 東南「아시아」諸國에 不安을 造成시켰으며, 同時에 遠대한 社會的 經濟的 發展을 增進하기 위한 相互 有利한 地域的 協력을 志向케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問題의 解決은 東南「아시아」地域의 平和와 安全保障의 堅固化를 위한 現實的인 手段을 장구한다는 問題와 緊密한 關係가 있다. 다시 말해서 地域間의 平和가 곧 全世界의 平和와 直結된다는 것은 누구나가 理解하고 있는 바다. 때문에 모든 「아시아」 國家들로서는 自己들의 平和와 獨立을 確固히 한다는 基礎下 에서 또한 相異한 社會體制間의 平和共存原則下에서 相互 理解와 協력을 增進시킨다는 것은 커다란 意義를 지니게 된다.

바로 이같은 뜻에서 「아시아」集團 安保構想은 「아시아」諸國人民의 利益에 合致되며, 따라서 이 構想은 보다 廣範圍한 傳播와 支持를 받게 될 것이다.

4. 中共의 領土擴張 企圖를 非難하는 論調

(6月 13日 字 「 프라우다 」 紙에 「 쿠알라 · 룸프르 」
發 「 따스 」 通信 報道)

「 말레이지아 」의 『 우주산 · 말레이지아 』 紙는 北京의 現指導層은 事實上 中共과 國境을 같이 하고 있는 모든 國家에게 領土上의 法的 權利를 主張하고 있다고 報道하였다.

最近 中共을 訪刺한 바 있는 同紙의 特派員은 北京大學 學生들이 現在 中共의 歷史研究에 活用하고 있는 地圖와 教科書에는 소 聯, 蒙古, 印度, 朝鮮, 「 베트남 », 「 라오스 », 「 버마 」 그밖에 南支 那海와 隣接水域의 島嶼 等 廣大한 地域을 中共의 領土로 包括시키고 있다고 指摘하였다.

또한 同記事에서, 얼마 前만 해도 이러한 中共의 領土侵害의 意圖는, 例를 들어 1960年代初 中共 · 印度 間에 있었던 紛爭과 같이 大規模의 武力衝突을 惹起시킬 要因을 가졌던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強調하고 있다.

때문에 公式文書에서 記錄된 北京當局의 領土權에 대한 主張은 「 아시아 」의 新生開發途上 國家들에게 深刻한 不安感을 造成시켜 주고 있다고 同紙는 結論을 맺고 있다. 「 아시아 」의 新生開發途上 國家들은 이러한 中共의 意圖를 隣接國家를 犠牲하여 中共의 領土를 擴張하려는 北京指導層의 또 하나의 企圖로 내다보고 있다.

5. 6. 25動亂 24周年을 맞아 南北問題에 대한論評

(6月25日字 「이즈베스차」紙 海外情勢論評欄의 「바실리에프」 寄稿)

南朝鮮에서의 外國軍 撤收와, 아울러 平和的이고 民主的인 原則下에 祖國을 統一하려는 朝鮮人民의 戰爭에 대하여 連帶性을 表明하는 國際的 月間行事가 最近始作되었다.

이미 오랜전에 設定된 傳統에 따라, 이 國際的 月間行事는 24年前 帝國主義侵略軍이 朝鮮半島에서 3年餘에 걸쳐 慘禍와 破壞를 가져왔던 無慈悲한 「피」의 戰爭을 挑發했던 時期와 때를 맞추어 始作되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祖國의 自由와 獨立을 위한 朝鮮人民의 正當한 鬪爭은 모든 進步的인 人類의 支援을 받아 마침내 勝利로 끝났으며, 朝鮮에는 休戰協定이 締結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休戰協定이 締結되었음에도 不拘하고 지금까지도 朝鮮半島의 情勢는 深刻한 不安을 惹起시키고 있다.

이 緊張存続의 主要原因의 하나는 朝鮮이 依然히 兩分되어 있다는 事實이며 또한 이에 못지 않게 重要한 原因은 南朝鮮에 外國軍隊가 駐屯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最近의 事態는 서울爲政者 朴正熙로 하여금 煽動的인 『敵對政策』을 敢行하도록 고무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全國을 強制的으로 武裝化하고 民主的인 自由를 束縛하고 至極히 反民族的인 路線을 敢行하여 平和的이고 民主的인 原則下의 朝鮮의 再結合의 可能性을 抹殺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南朝鮮政權의 政治하곤 判異하게 對照的으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政治는 全朝鮮人民의 期待에 符合하고 있는 것이다.

即 最近 近年 동안 不斷히 朝鮮의 平和的이고 民主的인 統一을 위하여 建設的인 提案들을 提起하였다. 이같은 一聯의 有益한 對外 政策面의 提案들과 나란히 昨年 共和國 勞動黨 中央委員會 總秘書 겸 共和國 國家主席인 金日成에 의하여 提議된 『5大綱領』은 特別한 意義를 지니고 있다.

이 『5大綱領』은 共和國의 北半部에서 뿐만 아니라 南半部에서도 廣範한 呼応을 얻고 있다. 이 綱領은 南北地域間의 軍事的衝突을 解消하고 緊張을 緩和하며 雙方間의 多方面에 걸친 協力과 交流, 그리고 모든 階層의 人民이 祖國統一을 위한 愛國的인 課業에 參與할 수 있는 條件을 造成하며, 南北間의 『聯邦制』의 創設을 規定하고 있다.

이에 이어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는 「平和的, 民主的 原則下의 祖國統一」이라는 當面 重要課題의 早速한 實現을 위하여 自己의 모든 努力을 傾注하면서 今年 봄에는 새롭고 重要한, 平和的인 「아시안티브」를 잡기에 이르렀다. 即 共和國 最高人民會議는 美國 議會에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과 美合衆國間에 平和協定을 締結하고자 書翰을 發送했던 것이다.

全世界의 進步的인 社會層은 朝鮮問題를 平和的인 政治的 方法으로

로 解決하려는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의 모든 主導的인 提案에 대하여 滿足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서울側은 여전히 雙方間의 對話의 進展을 摸索하려는 이러한 모든 提案들을 默殺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最近 南朝鮮政權은 보다 強力하게 軍備競爭을 促進하고 있으며, 보다 廣範한 民主的 勢力에 대한 彈壓과 아울러 보다 빈번하게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國境에서 軍事的 挑發을 일삼고 있다.

朝鮮人民의 戰爭에 대하여 連帶性を 強化하는 現在의 月間行事는 소聯의 始終一貫한 平和政策의 德分으로 全世界의 社會主義的 協力이 緊張緩和에 두드러진 進歩를 이루게 될 때 그때야 말로 意義 있는 時期가 될 것이다.

이와 關聯하여 朝鮮半島 情勢의 正常化問題는 特히 重要한 課題로 抬頭되게 되는 것이다. 소聯은 恆常 朝鮮人民의 正當한 課業을 支持하였으며, 앞으로도 進步的인 全人類와 함께 平和的이고 民主的인 方法으로 祖國을 統一하려는 朝鮮人民의 鬪爭에 대하여 連帶性を 強化해 나갈 것이다.

6. 緊急措置下 韓國情勢에 關한 非難論調

(7月 21日 字 「 프라우다 」 紙 海外時事評論欄에서 「 라주바에프 」 論評)

서울에서 또 다른 裁判이 열렸는 바, 軍法會議는 政府顛覆陰謀罪로 55名의 被告人에게 苛酷한 判決을 내렸다. 그들중 14명은 死刑에, 그 以外의 者들에게, 15年에서 無期懲役に 이르는 等の 禁錮刑이 宣告되었다.

이 被告들 모두가 南朝鮮 全域에서 青年들의 反政府運動이 広範한 社會階層의 支持를 받으면서 高潮되었던 今年 봄에 逮捕되었다. 大衆集會에 參加한 者들은 反民族的 政治를 恣行하고 있는 서울 政權을 辛辣하게 非難하였다.

「民青聯」이 이러한 反抗運動을 主導했으며, 反抗運動이 격화되자 南朝鮮政權은 極度로 唐慌하게 되었다.

「民青聯」은 「共產主義的인 組織」으로서 緊急措置에 의하여 法律의 保護를 받지 못한다고 公表되었으며 「民青聯」運動에 參與했던 782名이 逮捕되었다.

南朝鮮에서 軍法會議가 尙창 進行되었을 무렵 서울側에선 南北間의 相互信賴 基盤을 確立하자고 呼訴하는 소리가 震動해 왔음에 注意를 들려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呼訴들의 偽善行爲에 警惕를 禁치 못할 뿐이다.

南朝鮮保安當局은 共產主義的인 威脅에 대한 鬪爭이라는 口實下에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와의 接觸을 擴大하여 平和적이고 民主적인 方法으로 祖國의 統一을 促進하려던 南朝鮮 人民들을 投獄시켰다.

共和國政府의 「이니시아티브」로서 平壤과 서울간의 會談이 始作되었던 지난 2年間 南朝鮮爲政者들은 「祖國統一」의 「솔로전」의 大衆의 人氣를 自己들의 反民主적인 政權強化에 利用하려고 무던히 애를 써온 것이 證明되었다. 反抗者들이 祖國의 統一問題를 眞實히 妨害하고 있는 양 朴正熙는 自己에게 好感을 주지 못하는 政治活動家들을 계속 彈壓하고 있다.

南朝鮮側의 罪科로 南北調節委員會會談은 窮地에 廻하게 되었고, 지금 서울의 爲政者들은 「협의 立場」에서 南北對話를 摸索하면서 軍備競争을 계속하며 共和國에 대한 武力挑発行爲를 恣行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行爲들을 非難하는 南朝鮮人民은 裁判에 回付하게 되었다.

새로운 彈壓과 「테로」를 驅使하여 朴政權은 名實 共に 民主主義적인 社會改革과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해 尽力하는 「협의 成長」을 阻止하고 있다.

그러나 彈壓으로써는 南朝鮮人民大衆의 意志를 꺾 못할 것이며, 世界의 進歩적인 社會輿論은 南朝鮮人民에게 同情과 支持를 아끼지 않고 있다.

7. 南北統一問題에 대한 論評

7月 29日字「푸라우다」紙 海外評論欄
(「바체슬라브·라주바에프」 論評)

南·朝鮮에서의 外國軍 撤收와 아울러 平和적이고 民主적인 原則下에 祖國을 統一하려는 朝鮮人民의 鬪爭에 대하여 連帶性을 다짐하는 月間行事는 國際적인 規模로 實施되었다.

月間行事期間中인 6月 25日부터 7月 27日까지 一連의 大衆集會와 소聯을 비롯한 數 많은 나라에서 社會團體 代表者大會가 開催되었다.

大會 參加者들은 統一된 民主國家에서 살아 보려고 尽力하는 朝鮮 愛國者들의 努力에 대하여 決定的인 支持를 表明하였다. 朝鮮의 統一은 오래전부터 提起되어 온 問題인 것이다. 그러나 벌써 30年間이나 朝鮮의 分析狀態는 朝鮮人民의 鬪爭의 源泉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極東의 이 地域에서 緊張事態를 造成시키고 있다.

現實은 雙方間의 正常化에 이르는 路程에서 가장 큰 障礙物의 하나가 南朝鮮의 外國軍 駐屯이라는 것을 確實히 證明하고 있다.

「유엔」의 擁護下에 이곳에는 美國의 軍事基地가 配置되었으며, 4萬名의 美軍이 駐屯하고 있다.

外國軍의 駐屯은 緊張緩和의 過程에 妨害가 될뿐만 아니라, 평양과 서울間의 對話進展을 沮害하고 있다. 共和國政府는 外國軍이 「유엔」旗를 使用할 權限을 剝奪하도록, 또한 南朝鮮 領土에서

遲滯없이 外國軍이 撤收하도록 間斷없이 呼訴해 왔다. 外國軍 撤收와 朝鮮人民의 國內問題에 대한 모든 干涉의 排除는 朝鮮의 모든 狀況속에서 마땅히 提起되어야 하며, 또한 이것이 雙方間의 交渉의 進展과 相互信賴를 促進시켜 준다는 事實은 疑心할 餘地가 없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서울政權은 全的으로 이에 대하여 反旗를 들고 있다. 서울政權의 爲政者들은 共和國의 다른 建設的인 提案들의 實現에 대한 態度와 마찬가지로 이 外軍 撤收問題는 『時期尚早』라고 主張해 왔다.

2年前에 始作된 南北調節委員會會談도 그러한 南朝鮮代表團이 取한 態度로 事實上 決裂을 免치 못하게 된 것이다.

南朝鮮에서는 如前히 『北과의 對決』을 呼訴하는 움직임이 煽動的으로 일고 있으며, 또한 이에 따른 軍備競争의 強化가 促進되고 있다. 共和國에 對한 軍事的 挑發行爲가 繼續되고 있다.

同時에 共和國과의 交渉擴大와 祖國의 再結合을 促進하기 위해 積極的으로 外國의 壓迫에 反抗하는 者들에게는 苛酷한 迫害와 彈壓이 내려지고 있다. 自己 祖國의 平和的인 統一을 向한 朝鮮 愛國者들의 努力은 進歩와 自由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支持를 받고 있다.

바로 이러한 理由로 해서 世界의 여러 地域에서 朝鮮人民에게 連帶性을 다짐하는 運動이 擴大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1. 蘇聯科學「아카데미」 「아시아」 人民研究所,
Fifty years of Soviet Oriental Studies
2. George Ginsbuge, A Profile of Soviet Literature on
Korea, 1945-1970
3. 「로자·스위링겐」,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1958
4. 國會圖書館, 蘇聯에서의 韓國學, 1972
5. 國土統一院, 南北接觸의 類型定立, 1973
6. 國土統一院, 소聯의 對韓關心度 및 對소接近方案, 1973.11
7. 國會圖書館, 소聯의 內外政策變遷過程, 1974
8. 國土統一院, 韓國의 對소平和外交方案, 1973.
9. 國土統一院, 東歐接觸을 위한 外交的代案, 1973.
10. 國土統一院, 4大強國과 韓半島와의 關係, 1973.
11. Robert G. Wesson, The problem of Soviet foreign policy,
1969
12. 李 徹, 韓·蘇關係의 展望과 對소接近의 「패턴」, 「立法調查
月報」, 1974.1
13. 李基鐸, 韓國의 對中·蘇外交의 可能性, 「北韓」, 1974.2
14. Pravda, Izvestia 紙 1974.4.24-7.22 等